

교회 안의 여성: 성경적 개관

F. F. 브루스(F. F. Bruce)

F. F. Bruce · 독일어 번역: Hans-Jörg Ronsdorf · 2021년 4월 · 2026년 10월 개정

“Women in the Church: A Biblical Survey”, Christian Brethren Review 33 (1982): 7-14.

인물 소개: 프레더릭 파이비 브루스(Frederick Fyvie Bruce), 흔히 **F. F. 브루스**로 알려진 그는 (1910년 10월 12일 스코틀랜드 엘긴 출생, 1990년 9월 11일 잉글랜드 더비셔주 벅스턴에서 별세) 스코틀랜드의 복음주의 신학자로, 몇몇 저자들은 그를 20세기 영국 신학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신약학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꼽습니다.

브루스는 형제운동에 속한 한 전도자의 아들이었고, 평생 열린 형제단(Open Brethren)의 적극적인 회원이었습니다. 다만 형제운동의 가르침에 속하는 세대주의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959년에 그는 맨체스터 대학교의 존 라일랜즈(John Rylands) 성경 비평 및 주해 교수가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는 같은 세대의 어느 교수보다도 많은 성서학 박사 논문을 지도했습니다. 그는 성경을 매우 깊이 알았다고 전해집니다. 학생들의 말에 따르면 그는 강의 중에 히브리어와 헬라어 원문뿐 아니라 여러 영어 성경 번역본까지 외워서 인용했습니다.

개인적인 신앙 입장에서 그는 복음주의자로 알려졌습니다. 복음주의 학생 운동인 InterVarsity를 열렬히 지지했고, 20년 넘게(1956–78년) Christianity Today의 자문 공동 편집인으로 일했습니다.

같은 세대 복음주의자들의 다수와 달리, 그는 바울 서신에 대한 자신의 해석에 근거하여 교회 사역에서 여성의 동등한 권리를 위해 단호하게 싸운 사람이었습니다.

독일어로 나온 그의 책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제 청소년 시절에 가장 잘 알려진 책은 “Die Glaubwürdigkeit der Schriften des Neuen Testaments”(신약성경 문서의 신빙성), 1976년이었습니다. 독일어로 나온 그의 책에 관심이 있는 분은 여기 [헌책방](#)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F. F. Bruce” – 중고 책, 고서, 새 책 구입 (booklooker.de)

들어가며

문화적 조건성이라는 현상과 그에 따른 적응은 성경 자체에서 거듭 드러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유목민들이 광야에서 가나안의 정착 농경 생활로 들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또 이 농경 사회가 왕정 아래에서 도시적이고 상업 중심적인 경제에 자리를 내주는 모습도 봅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들이 고발했던 온갖 폐해와 함께 말입니다. 우리는 포로기 이후에 거대하고 잘 조직된 제국의 일부로 사는 삶에 적응해 가는 모습을 봅니다. 처음에는 페르시아, 그다음에는 헬레니즘, 그리고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시간상) 좁은 신약성경의 테두리 안에서도 우리는 복음이 유대적이고 팔레스타인적인 모태에서 지중해 세계의 이방 환경으로 옮겨 심기는 것을 봅니다. 이런 점에서 특히 요한의 방식이 눈에 띕니다. 그는 그리스도에 관한 본래의 복음을

지키면서도, 그 복음이 처음 선포되었던 청중과는 상당히 다른 청중을 위해 새로운 언어 양식으로 그 복음의 영속적이고 보편적인 타당성을 표현합니다.

우리 주님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주된 관심사 가운데 하나는, 본래 전혀 다른 삶의 형태 속에서 주어진 율법을 동시대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안식일 법은 단순한 목축 경제나 농경 경제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사회에서는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이해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시대가 시작될 무렵의 더 복잡한 상황에서는 어떤 종류의 활동이 "일"의 금지에 해당했을까요? 서기관들은 사람들에게 분명한 방향을 주려면 자세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들의 한 학파에서는 "일"을 서른아홉 가지 범주로 정했고, 그 모두가 안식일에 금지되었습니다.

이것이 문화적 조건성의 문제에 접근하는 한 가지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달랐습니다. 그분은 근본 원리로 돌아가는 길을 택하셨습니다. 계명의 본래 목적을 증진하는 행동은 어떤 것이든 계명을 이루는 것이고, 그 본래 목적을 방해하는 행동은 어떤 것이든 계명을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행동이 본래 목적을 증진하고 어떤 행동이 그것을 방해하는지는 사람들 스스로 판단해야 했습니다. 그분은 세세한 규정을 만들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복음서는 구약성경을 다루는 데 있어 서기관들의 길과 예수님의 길이 어떻게 대조되는지 보여 줍니다. 그 뒤의 교회는 우리 세대에 이르기까지, 신약성경을 다루는 데서 똑같은 대조를 보여 줍니다. 곧 신약성경의 원리를 변화하는 상황에 적용하려는 여러 가지 시도에서 말입니다. 교회법은, 그렇게 불리든 그렇지 않든, 서기관들의 길, 곧 장로들의 전통의 한 예입니다.

신약성경의 영원한 메시지에 오늘 우리가 실제적인 관심을 기울일 때, 문화적 조건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이 메시지가 처음 전달되었던 지역적이고 시대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그 메시지의 지속적인 내용이 참으로 무엇인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그 메시지를 우리 자신의 문화가 가진 지역적이고 시대적인 환경에 어떻게 새롭게 적용할지 배우고자 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자신과 다른 전통을 가진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의 경우, 우리는 이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즉각적이고 세계적인 연결망을 가진 오늘날에도 문화 충격은 여전히 현실입니다. 더구나 그 현실은 양쪽 방향으로 일어납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서와 서신들이 처음 나왔던 문화들을 세심하게 의식하는 것이 이 문서들을 그 본래의 환경 속에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전제해 봅시다. 그래야 우리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 문서들로부터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I. 창조에서

창조 이야기의 근본 가르침은, 하나님이 사람(아담)을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실 때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창 1:27).

창세기 1장의 이야기에서는 우선순위의 문제가 전혀 제기되지 않습니다. 하물며 우월성의 문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여자는 (시간상) 남자 다음에 지어집니다. "그에게 알맞은 돕는 배필"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후대의 한 해석자가 표현한 것처럼 "남자는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여자는 남자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창조 이야기에서 남자가

(시간상) 먼저라는 사실이 남자의 우월성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방향의 주장은 마지막에 창조된 것이 작품의 면류관이라는 반론으로 맞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 논증 모두 핵심을 비껴갑니다.

II. 타락에서

한 성이 다른 성보다 우월하다는 말이 처음으로 나오는 곳은 창조 이야기가 아니라 타락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본래부터 있는 우월성이 아니라 힘으로 행사되는 우월성입니다. 창조주께서 하와에게 하신 말씀,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창 3:16)는, 죄에 빠진 인간의 상태에서 남자가 여자의 자연스러운 그리움을 이용하여 그녀를 지배하고 예속시킨다는 뜻입니다. **여성의 예속은 실로 남성의 타락한 본성이 드러내는 증상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이 타락의 결과를 극복하는 것을 포함한다면, 그분의 사역이 여성의 해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분명합니다.

III. 새 창조에서

(a) 예수님의 태도와 가르침

예수님은 남성이 지배하는 문화 속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그 문화의 몇몇 기본 전제를 조용하고 간접적으로 허무셨습니다. 예를 들어 이혼 문제에 대한 그분의 대응은 근본 원리에 늘 호소하시는 그분의 방식을 보여 줄 뿐 아니라, 실제로 가장 중요한 결과로서 여성에게 크게 불리했던 불균형을 바로잡았습니다. 그분의 남성 제자들은 이를 곧바로 알아차렸습니다. 그들의 반응이 그것을 보여 줍니다. 그들은 “남자가 어떤 경우에도 아내와 이혼할 수 없다면 장가들지 않는 것이 낫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마 19:10).

처음 열두 사도가 모두 남자였다는 사실에서 때때로 부당한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 주님의 남성 제자들은, 특히 그분의 마지막 시간에, 여성 제자들 곁에서 초라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자신의 부활 소식을 전하는 특권을 처음으로 맡기신 이들은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분은 여성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거리낌 없이 온전한 인격체로 대하셨습니다. 그분은 베다니의 마리아의 귀 기울이는 귀와 마음에 가르침을 전하셨고, 하필이면 한 사마리아 여자에게 참된 예배의 본질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물가에서 그분을 만난 제자들은 그분이 여자와 이야기하고 계신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종교 교사에게 그런 일은 잘해야 시간 낭비였고, 나쁘게는 영적인 위험이었기 때문입니다.

(b) 바울의 태도와 가르침

바울은 남자든 여자든 자신의 동역자들을 여러 번 언급하는데, **그 가운데 어디에서도 사역이나 지위의 차이는 암시되지 않습니다.** 여성 동역자들 가운데 우리는 겐그레아 교회의 여성 집사(디아코니아 자매(Diakonisse)가 아닙니다!) 뵈뵈를 기억합니다(롬 16:1-2). 그녀는 로마서를

무사히 전달함으로써 보편 교회에 헤아릴 수 없이 귀한 봉사를 했습니다. 또 빌립보의 유오디아와 순두게도 기억합니다. 바울은 이들을 글레멘드와 다른 이들과 함께 복음 안에서 자신과 나란히 힘써 일한 여성들로 칭찬했습니다(빌 4:3). 바울은 "사도"라는 칭호를 누가보다 더 넓게 사용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6:7에서 안드로니고와 나란히 언급된 사람이 남자 유니아스가 아니라 여자 유니아라면(크리소스토무스(Chrysostomus)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바울은 사도들 가운데 적어도 한 여성을 포함시키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바울이 받은 교육의 관점에서 보면, 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다"(갈 3:28)고 선언할 때 그는 혁명적인 생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바울 시대에 유대인의 아침 기도에는 아마도, 경건한 남자가 자신을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종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여자가 아니라 남자로 지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구절이 들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선언으로 세 가지 특권이 모두 지워집니다. 바울 시대의 유대교에서 그 특권들이 아무리 실제적이었다 해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폐지되었습니다. 유대교에서는 남성만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눈에 보이는 표징을 몸에 받았습니다. 할례 없는 바울의 복음에서 나오는 결과는, 여성에 대한 남성의 그런 종교적 특권이 모두 폐지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까지도 정통파 유대인들 사이에서 회당 회중이 성립되는 정족수는 자유인 남자 열 명입니다. 남자 열 명이 출석하지 않으면 예배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덧붙이자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임에는 "두세 사람"이라는 덜 엄격한 숫자가 주어져 있으니 다행입니다. 게다가 그들이 남자인지 여자인지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없습니다.) 반면에 바울은 그리스도인 여성들이 교회 모임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가 공공질서를 염려하여 여성들이 기도하거나 예언할 때 머리를 가리라고 요청할 때에도, **그 너울은 그들이 이런 방식으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행사할 권위의 표시이지, 다른 누군가가 그들 위에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표시가 아닙니다.**

바울이 다른 곳에서 예배에 여성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 하는 말은 어느 것도 이 원칙 선언과 모순되는 의미로 이해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14:34("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와 디모데전서 2:11("여자는 일체 복종하는 가운데 조용히 배우라")에 나오는, 여성의 공적인 자유에 대한 겉보기의 제한에도 해당합니다. 실제로 고린도전서 14:34-35의 본문("서방" 사본 전통은 이 구절을 40절 뒤에 둡니다)이나 목회 서신의 직접 저작 문제에 대해 비판적인 물음들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4:34-35를 진정한 본문에서 삭제할 만큼 증거가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이 구절들에서 말하는 금지는 예언의 말에 대한 판단을 담은 질문을 하는 것과 관련됩니다(적어도 문맥은 그렇게 짐작하게 합니다). 목회 서신에 대해 말하자면, 우리는 이 서신들을 정경으로 받았으며, 이것은 디모데전서 2:9-15에도 해당합니다. 저는 헬라어 신약성경을 모국어로 읽었던 크리소스토무스의 견해에 동의하는 편입니다. 그는 디모데전서 2:9-10에, 여성들이 공적인 기도에 참여할 때 그들의 옷차림과 행동이 합당해야 한다는 지시가 담겨 있다고 보았습니다(이 지시는 고린도전서 11:2-16의 가르침을 발전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장의 11절과 12절에서는 여성에게 가르치거나 다스리는 것이 아주 분명하게 허락되지 않습니다. 두 가지 논거, 곧 (a) 아담이 하와보다 먼저 지음을 받았다는 것과 (b) 하와는 정말로 속았지만 아담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길 때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알고 있었다는 것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곧바로

분명하지 않습니다. 저는 앞의 논거가 장자의 특별한 권리를 인정하는 장자권 원칙의 초기 사례라는 주장에 그다지 만족하지 않습니다.

주해는 본문이 처음 놓였던 환경 속에서 그 의미를 밝히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해가 자기 일을 마친 뒤에, 본문을 적용할 때 우리는 신약성경을 규칙집처럼 다루는 일을 피해야 합니다. 신약성경 본문을 우리 자신의 상황에 적용할 때, 우리는 우리 주님 당시 서기관들이 구약성경을 다루던 방식으로 그것을 다룰 필요가 없습니다. **특정한 상황에서 신자들을 위한 지침으로 의도된 것을 모든 시대에 구속력 있는 율법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¹ (디모데전서 뒷부분에 나오는 과부에 관한 규정들을 오늘날 문자 그대로 시행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인정됩니다. 물론 그 본질적인 원리는 여전히 지켜야 합니다.) **자신이 회심시킨 이들을 율법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키는 데 그토록 마음을 쏟았던 바울이 후대 사람들에게 입법자가 되어 버린다면, 그것은 아이러니한 역설입니다. 특정한 상황에서 일련의 지침으로 지켜질 수 있었던 성령의 자유가, 새로운 상황에서는 다른 방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도들의 서신 가운데 지역적이고 일시적인 효력을 가진 요소들과 보편적이고 지속적인 효력을 가진 요소들을 어떤 기준으로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느냐는 물음이 생깁니다. 이 물음은 너무 커서 여기서 자세히 논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글에 관해서라면, 자유에 대한 그의 열정적인 강조가 믿을 만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한편으로는 영적인 종살이와, 다른 한편으로는 도덕적 방종과 대비되는 참된 자유 말입니다. 그 기준은 이렇습니다. 바울의 가르침에서 참된 자유를 증진하는 것은 무엇이든 보편적이고 지속적인 효력을 가집니다. 참된 자유를 제한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무엇이든 지역적이고 일시적인 조건과 관련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주제로 넘어가자면, 음식 문제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들은 그 그리스도인이 그때 몸담고 있는 사회에 따라 정해집니다. 그리고 그런 제한조차도 언제나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고려하라는 더 높은 원리의 표현입니다.)

신약성경을 적용할 때 근본 원리에 호소한다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권적인 기쁨 가운데 개별 신자들에게 여러 은사를 나누어 주실 때, 그 은사들은 온 교회의 유익을 위해 쓰이도록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성령께서 그리스도인 여성들에게 가르침이나 지도의 은사를 분명히 주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그분의 뜻에 대한 증거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고전 12:11). **그러나 경험이 보여 주듯이, 성령께서는 이 은사들과 다른 은사들을 “차별 없는 존중”으로 남자와 여자에게 똑같이 주십니다.** 물론 모든 여성에게 주시는 것은 아니며, 모든 남성에게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성 사역에 관한 이 문제에서, 여성들에게 기도하고 예언하는 것은 허락하되 가르치거나 지도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는 어중간한 절충에 만족하는 것은 흠족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겠습니다. 신약성경을 적용할 때 이러한 근본 원리에 호소한다면, 지역 교회의 하나 됨을 위태롭게 하는 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글에서 제시하는 방식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할 자유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속도를 강요하거나, 그런 이해가 교회 안에서 널리 받아들여질 때까지 자신들의 성경 이해를 강요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아들여지면, 강요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IV. 여성의 제사장직

영국 국교회와 그와 비슷한 교단들에서 여성을 사제직에 받아들이는 문제를 두고 최근에 벌어진 논쟁은, 대체로 우리가 공유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제사장직 이해에서 비롯됩니다. 이 논쟁에서 많은 이들이, 여성이 교회에서 자유교회 목사가 하는 거의 모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여성이 할 수 없는 유일한 일은 성찬을 집례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입장에 깔린 제사장직 개념은, 선택된 특정한 남성들이 엄숙하게 서품을 받아 들어가는 구별된 신분이라는 개념입니다. 여성을 이 서품에서 배제하는 것은 여러 가지 논거로 옹호되는데, 그 가운데 어떤 것들은 다른 것들보다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그런 서품받은 사제가 출석하여 집례하지 않으면 성찬 예배는 무효까지는 아니더라도 비정규적인 것이 된다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자, 우리는 이것이 우리와 상관없는 문제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만인 제사장직을 믿습니다. 우리는 제한된 사제 계급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성찬 예배에서 한 여성이 떡을 위해 감사하고, 회중에게 나누기 전에 그것을 떼는 것은 괜찮을까요? 제 짐작에 우리 형제들 가운데 몇몇은, 어쩌면 마지못해, 여성에게 이것만 빼고 다른 모든 것을 허락할 것입니다. (제가 그들을 오해하는 것이라면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저는 때때로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그러나 왜 그렇습니까? 식탁에서 감사하고 떡을 미리 떼는 일은, 그 일을 하는 사람이 그곳에 함께 있는 다른 신자들, 곧 공동의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신자들의 대표로서 그 일을 하는 한에서만 제사장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식탁에 실제로 함께 계시며, 자신을 대신할 누구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공동 제사장직에 함께 참여하는 그리스도인 여성이, 그리스도인 남성과 똑같이 동료 신자들을 대신하여 그런 대표 행위를 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수사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저는 성경적인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우리의 몇몇 여성 수련회에서 여성들이 다른 모든 순서는 아주 능숙하게 진행합니다. 그런데 성찬 예배만큼은 그것을 인도할 남자 한두 명을 구색 맞추기로 데려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깁니다. 이것은 주최한 여성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성이 성찬 예배를 인도한다는 것을 영적 지도자들이 알게 되면 일부 자매들이 참석하지 못하게 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J. N. 다비(J. N. Darby)는 분명 페미니스트는 아니었지만, 건전한 상식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여성이 찬송 하나를 시작하는 것조차 다소 어울리지 않는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녀가 겸손하게 한다면 나는 반대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여성들이 남자 없이 함께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자 세 사람이 외딴 섬에 있다면, 그들이 사적으로 하는 한 함께 떡을 떼지 못할 이유를 나는 모르겠다.” 여기서 그는 건전한 상식을 보여 주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외딴 섬에 자기들끼리만 있다면 사적으로 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물로 둘러싸이지 않은 외딴 섬들도 있습니다.

V. 형제단의 전통과 관행

J. N. 다비를 언급하면, 형제운동이 (예를 들어) 퀘이커교와 달리 처음부터 남성 중심으로 기우는 경향이 있었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탁월한 여성, 파워스코트 자작부인 테오도시아(Theodosia, Viscountess Powerscourt)를 잊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녀 역시 “자기 자리를 알았습니다.”

그런 태도를 유지시킨 두 가지 요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우리 (형제단) 운동 안에 이어져 온 교회회적 전통이고, 다른 하나는 성경을 적용하는 우리의 서기관적 태도(율법주의라고까지는 하지 않더라도)입니다.

물론 두드러진 예외들도 있었습니다. 베를린 호엔슈타우펜 거리의 형제단 교회는 토니 폰 블뤼허(Toni von Blücher, 워털루에서 웰링턴과 함께 싸운 장군의 여성 후손)와 뜻을 같이하는 몇몇 여성들이 세웠습니다. 한 남자가 그들의 모임에 합류했을 때, 그는 (그들과 달리) 은사가 너무 없어서 그가 있다고 해서 그들의 진행 방식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또 저는 스코틀랜드 북동부 애버딘셔의 리니(Rhynie)에 있던 한 형제단 모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 모임은 19세기 마지막 사반세기에 여성에게도 남성과 똑같이 사역의 자유를 주어야 한다고 끈질기게 주장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런던브라운(Lundin-Brown) 부인이라는 아주 나이 많은 여성을 알게 되었는데, 그녀는 여름을 우리 지방에서 보내곤 했습니다. 그녀의 그리스도인 활동은 1859년 부흥보다 훨씬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그녀는 복음을 공적으로 선포하는 일에 열심이었는 데도 형제단과의 교제를 누렸습니다. 제가 그녀를 알았을 때 그녀는 백 살을 바라보고 있어서 설교 활동을 더는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스코틀랜드 북부의 가장 전통적인 형제단 모임에서 기도회에 소리 내어 참여하는 일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꺾이지 않는 의지를 가진 노부인은 무엇이든 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 자유의 행사는 그 시대 대부분의 교단에서 보기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19세기의 태도는, 1세기의 원리와 분명히 구별되지 않는 곳에서는 오래 살아남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론

이 글의 처음에 이전 시대의 문화적 조건성에 대해 말한 것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해당됩니다. 우리 역시 문화적으로 조건 지어져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뿐입니다. 여성 해방 운동은 우리의 관행뿐 아니라 우리의 어휘까지도 조건 지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중요한 문제에서, 우리가 생각과 실천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동시대 세상의 운동들에 영향을 받는다면 안타까운 일일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주님과 그분의 종 바울의 사역을 통하여 오늘날 남자와 여자에게 해방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역, 이 해방의 말씀은 성경의 지면에 우리를 위해 단단히 새겨져 있습니다. 성경을 바르게 사용한다는 것은,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 20세기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며, 또한 1세기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에 똑같이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F. F. 브루스(F. F. Bruce)에 관한 한 후기에서: 그의 교회 전통은 여성 해방 운동의 맨 앞줄에 서 있던 전통이 결코 아니었지만, 그는 교회 사역의 모든 면에서, 그리고 공적인 삶과 사적인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이 온전히 참여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나는 교회 사역에서 남자와 여자 사이에 원칙적인 차이를 두는 입장을 지지할 수 없다 ...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이 일반적으로 믿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제사장직이 모든 신자가 함께 누리는 특권이라면, 그리스도인 여성이 그리스도인 남성과 같은 조건으로 자신의 제사장직을 행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있을 수 없다.”

독일어 번역: Hans-Jörg Ronsdorf, 2021년 4월 9일 hj-ronsdorf@t-online.de

출처: © 1982 Partnership (<http://www.partnershipuk.org/>). 허락을 받아 게재함.

2007년 12월 로버트 I. 브래드쇼(Robert I. Bradshaw)가 인터넷용으로 편집함.
<http://www.biblicalstudies.org.uk/>

주

1. 독일어 번역자 주: 최근 한 설교에서 들은 것처럼, 우리는 성경을 요리책처럼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말씀을 성령의 자유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 있는 말씀(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 있는 관계 안에서 삶의 기준으로 삼아 살아야 합니다.